

지금 이 사람

—  
지역의 국어 문화를 이끄는  
국어문화원

박용식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기획부장을 만나다

—



답변자: 박용식(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기획부장, 국어국문학과 교수)

질문자: 권창섭(홍익대학교 강사)

때: 2015. 7. 20.

곳: 경상대학교 박용식 교수 연구실(진주)

행정 기관 및 공공 기관에서 만든 여러 공문서를 볼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험은 몇몇 사람들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공문서의 목적이 행정 조직과 시민들의 의사소통에 있는 것이라면, 이런 어려운 공문서는 시민들의 권익을 해치는 셈이 된다. 그래서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공문서들은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어기본법>의 제정 취지에는 이같이 이해하기 힘든 공문서를 우리말로 바르고 쉽게 쓰도록 하기 위함도 있다.

2005년에 제정, 시행된 <국어기본법>이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그리고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바람직한 국어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국어문화원’이 설립되어 활동한 지도 10년이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국어문화원이 해 온 일은 어떤 것들이며 어떤 과제들을 앞두고 있을까?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박용식 기획부장을 만나 <국어기본법>과 국어문화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 들어 보았다.

## ‘국어문화센터’에서 ‘국어문화원’으로

**권창섭**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뵈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용식** 네. 저도 반갑습니다.

**권창섭** 우선 국어문화원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일단 어떤 배경에서 ‘국어문화원’이란 기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박용식** 국어문화원의 설립 근거는 <국어기본법>입니다. <국어기본법>은 제1조에서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관이 ‘국어문화원’이라 할 수 있죠.

**권창섭** 〈국어기본법〉이 2005년에 제정되었으니 국어문화원의 출발도 2005년으로 볼 수 있나요?

**박용식** 처음에는 ‘국어문화원’이란 이름이 아니라 ‘국어문화센터’였습니다. 2005년도에 〈국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각 광역 지방 자치 단체에 소속된 대학들에 국어문화센터들이 하나씩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권창섭** 그럼 지정 대학은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대학에서 신청을 했나요?

**박용식** 〈국어기본법〉이 2005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우리 경상대학교에서는 5월부터 국어문화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법이 시행되자마자 국어문화센터 지정 신청을 했고 당시 문화관광부(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사를 나왔습니다. 사무실, 누리집, 상근자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상근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창섭** 그렇다면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은 경상남도를 대표해 지정된 것이겠네요?

**박용식** 그렇습니다. 국어문화센터로 설립되었다가 2008년도에 〈국어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어문화원’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국어문화원은 2009년도에 경상대학교 내부의 부속 기관으로도 승격되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실 대학 내부에 여러 연구 기관이 난립하고 있던 것을 정리해 나가던 시기였는데, 오히려 하나 더 설립하겠다고 하니 학교 측에서는 그리 달가워하진 않

았죠. 공간도 제공해야 할 것이고, 재정 면에서 도움이 되는 기관도 아닌 것 같고……. (웃음) 실무 직원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교내 국제어학원의 부속 기관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우왕좌왕했던 것이지요.

관(官)과의 협력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도청(道廳) 측과 협의할 사항들이 많아서 도청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청에 들어가 보면 저희 존재를 모를뿐더러 관련된 일을 누가 담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제 막 시작이었으니까요. 다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겠네요.

**권창섭** 정말 힘든 초기 과정을 거치셨군요. 초대 원장은 누구셨나요?

**박용식** 처음엔 ‘월’이 아니라 ‘센터’였으니 ‘센터장’이겠죠. 국어교육과 김용석 교수께서 초대 센터장이었고 이후 ‘월’이 되면서 원장이 되셨습니다. 그 후 국어국문학과 황병순 교수께서 역임을 하셨고, 지금은 국어국문학과 임규홍 교수께서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 지역의 국어 문화 거점 역할 톡톡히 해

**권창섭** 현재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입니까?

**박용식** 크게 연구 사업, 교육 관련 사업, 국어 상담, 국어 관련 행사의 기획과 개최, 언어 환경 바로잡기 사업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것이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역어 보존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진주 지역을 대상으로 의생활 문화, 제례와 혼례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

을 채록하고 정리하여 보존하는 작업입니다.

또 다른 사업을 하나 더 소개하자면 경남 지역 문화재 안내판의 정비입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찾아가 보면 그에 대한 설명을 적은 안내판이 어디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내판의 문구들을 읽어 보면 아주 어려워요. 역사 용어라든가 어려운 한자어들이 많아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바로잡는 작업을 했습니다.

**권창섭** 그럼 현재 경남 지역의 문화재 안내문들은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에서 바로잡은 대로 되어 있습니까?

**박용식** 아뇨.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만드는 것들은 저희 손을 거쳐서 나가게 되지요. 경상남도 소재 문화재들에 대해서는 바로잡은 안내 문구를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았습니다. 안내판을 새것으로 바꿀 때 이것을 쓰면 됩니다. 이런 지역 콘텐츠를 기록하고, 지역의 언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연구하는 일이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 사업들입니다. 우리 국어문화원의 가장 특징적인 사업이기도 하고요.

**권창섭** 국어 상담 업무란 주로 어떤 일을 말하나요?

**박용식** 초창기에 ‘국어상담소’라고 부르기도 했을 때 주로 하던 업무이지요. 국립국어원에 ‘가나다 전화’가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역할을 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나다 전화’와 중복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나다 전화’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우리 쪽으로 건너오는 사례들도 종종 있거든요. 경남 지역어에 대한 문의가 그렇습니다. 지역어와 방언을 포함하여 국어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권창섭** 문의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박용식** 1년 기준으로 많으면 100여 건 정도, 적을 때는 몇 십 건 정도 됩니다. 전화 문의와 누리집을 통한 문의를 합한 수입입니다.

**권창섭** 교정이나 운문 같은 일들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 출판물이나 학술 논문, 학위 논문 등의 교정과 운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업무(국어 상담, 교정·운문)가 국어문화원의 가장 기본 업무라고 할 수 있지요. 언중이 국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이 국어문화원의 기초 목적이니까요.

**권창섭** 교육 관련 사업은 주로 어떤 곳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박용식**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가 대표적인 교육 관련 사업인데 관공서, 공기업, 산업체 등 다양한 곳을 찾아갑니다. 군대나 병원도 가고, 저는 심지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간 적도 있습니다. 주로 어문 규범에 대해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더욱 다양한 곳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요즘은 주로 군대에서 요청이 많이 옵니다. (웃음) 또한 소외 계층을 위한 국어 교육도 하고 있어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 쪽에서도 참여해 국어나 언어생활에 대한 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권창섭** 청소년들을 위한 국어 교육은 어떤 내용인가요? 역시 언어 순화나 어문 규범과 관련된 것인가요?

**박용식** 청소년의 언어생활을 생각하면 착잡한 심정입니다. 지방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이중 언어를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선 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사는 지역어를 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표준어나 서울말을 배우고 싶어하지요. 지역어, 즉 방언을 쓰는 것에 대해, 뭐랄까 일종의 열등감 같은 것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

리가 해 줄 수 있는 이야기는 자기 언어, 자기 지역어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이중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언 정도입니다.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신 안의 언어 충돌은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학교 공교육에서 말아야 할 몫이긴 하죠. 그런데 아직 그런 내용을 공교육에서 해낼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것이지요. 저는 진주 인근 여러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만나곤 하는데 자신의 모어, 자신의 말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해 주려 애쓰고 있죠.

**권창섭**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박용식** 정규 수업이 아니다 보니 사실 관심은 덜합니다. 하지만 강호동 씨 같은 유명 연예인을 예로 들어 이야기하면 눈빛이 달라지기도 하죠.

**권창섭** 저도 울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기 때문에 공감이 됩니다. 학생들 스스로 그러한 고민들을 토로하나요?

**박용식** 직접 듣기보다는 학생들의 작문 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학 중에 서울에 놀러 갔어요. 놀이동산에서 재밌게 놀고 출구로 나와야 하는데 출구를 못 찾았답니다. 그러면 물어보면 될 것을 물어보질 못했대요. 사투리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던 거죠. 아버지 어머니의 말, 그리고 당장 우리가 쓰고 있는 말도 소중하고 중요하며,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는 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 청소년들은 자신의 상황이 힘든 것이고, 얼른 표준어나 서울말로 자신의 언어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표준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별개로 자신이 사용하는 말 자체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차원의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권창섭** 사실 언어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 많은 문화와 더 많

은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박용식** 단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짐으로만.

**권창섭** 요즘은 가사에 경상도 사투리를 쓴 대중가요도 있으니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겠네요.

**박용식** 네. 최근에 이 지역 방송사에서 만든 〈사투리의 눈물〉이라는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도 있었죠. 거기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다루기도 했고, 가수 강산에 씨도 경상도 방언을 이용해서 노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방언이란 것이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창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대상이 다양하겠지요?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도 국어문화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박용식** 네.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한국어 교육은 크게 세 영역입니다.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이 그 하나이고, 외국에서 온 교환 학생이나 어학연수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도 하지요.

**권창섭** 행사 관련 사업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기획, 진행해 온 행사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박용식**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상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상 국어 경시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문 규범을 포함하여 여러 국어 능력을 평가해서 시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 외국인 말하기 대회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경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발표하게 하고 우수자를 시상하였죠. 이는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하도록, 일반부와 학생부를 나누어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글 주간 기념행사가 있었는데요, 568돌 한글날을 맞아



근 한 달 동안 여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옛 생활 속의 한글’이라고 해서 경상대학교에 소장 중인 한글 고문헌을 일반인들에게 전시하였습니다. 주로 당대 생활상이 반영된 내용의 고문헌을 고르고, 또 해설도 제공해 일반인들이 옛 한글과 생활에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지요.

반대로 ‘현대 생활 속의 한글’이란 제목으로 다양한 한글 사진을 공모하여 그 당선작들을 전시했습니다. 사진들의 공모 내용은 상표나 상호, 메뉴판 등 생활 속에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 한글의 모습을 사진으로 첨부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도 간단하게 적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선된 작품들을 진주박물관 야외에 전시하였지요.

‘나만의 한글 가방 만들기 체험’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한글 도안이 인쇄된 친환경 가방(에코백)에 파스텔과 펜 등으로 스스로 가방을 꾸며 보도록 하였지요. 자신이 만든 가방을 사진 찍어 누리 소통망에 게시하면 기념품도 주었고요. 250여 명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권창섭** 한글 주간 행사는 말씀만 들어도 노력이 많이 들었을 것 같네요.

**박용식** 한글 주간 행사 전에 이루어진 국어 경시대회와 경상 외국인 말하기 대회도 사실은 한글날과 관련된 행사입니다. 개최 시기가 같아요. 그래서 9, 10월 두 달은 모든 직원이 초주검 상태죠. (웃음)

**권창섭** 국어책임관 공동 연수회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박용식** 해마다 치르는 행사입니다. 시·군 공공 기관의 국어책임관 혹은 국어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국어문화원과 협력하고, 국어책임관의 업무 능력 향상을 꾀하는 자리이죠.

## 함께 소통하기 위한 공공 언어 개선에도 앞장서

**권창섭** 공공 언어를 개선하는 작업, 행정 용어를 개선하는 작업을 해 나가는 일들은 관(官)과 협력하고 조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공 기관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박용식** 기관 쪽에서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관계가 꺾끄러워지기도 하지요. 우리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하는 일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괴로운 사람이 보도 자료를 쓰는 사람들이죠. 처음에는 그런 상황을 잘 모르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 서로 갈등도 있었습니다.

**권창섭** 어떤 갈등이죠?

**박용식**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지요. 자신들은 해당 용어를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써 왔는데 왜 굳이 바꾸라고 하느냐 등의 항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당사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것을 알고 조율이 가능한 지점들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국어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행정 기관 쪽에서도 좀 더 긴장을 하게 되었지요. 자신들의 언어 사용을 누군가가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어기본법>이 의무 조항이 아니다 보니 강제력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방 자치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권창섭** 지방 자치 단체장의 강한 의지로 좋은 결과를 낸 사례가 있었습니까?

**박용식** 고성군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012년에 고성군 내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문서 바로 쓰기’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군수가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올바르게 써야 업무도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판단

한 것이지요.

**권창섭** 공문서를 올바르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단지 공문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을 향한 글 역시 제대로 쓸 수 있게 확장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박용식** 네. 현수막이나 홍보문 등의 문구도 공문서를 바로 쓸 수 있을 때 더 선명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마다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내 책자들도 당연히 있겠죠. 안내 책자를 배포하기 전에 디지털 파일로 우리에게 건네주면 검토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무척 많아 바쁘다 보니까 우리에게 부탁을 잘 못 하나 봐요.

**권창섭** 규범성이라는 측면과 언어의 실제 사용이라는 측면이 많이 충돌할 것 같네요.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 언어를 개선하고 또 순화어를 제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던 언어를 간섭한다고 느낄 테니까요.

**박용식** 말이 나왔으니 순화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전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 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우리처럼 별로 힘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해 봤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웃음) 우리가 제시하는 대안들이 적절하게 느껴져야 할 텐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외래어나 로마자가 많이 들어가면 멋있어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어 그에 대해 지적하면 표정들이 좋지 않죠. 자신들은 계속 써 왔던 어휘니까요.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이야기는 하지요.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규범이라고, 적어도 규범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사용하는 것보다는 규범이 무엇인지는 알아두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권창섭** 파급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박용식** 언론에서 많이 써 주면 됩니다. 신문이든 방송이든 ‘웰빙’ 대신에 ‘참살이’, ‘무빙워크’ 대신에 ‘자동걸’을 써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다른 문제 발생 지점도 있지요. 공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개선된 공공 언어나 순화어를 사용하더라도 상급자가 그걸 싫어하면 도루묵이 됩니다. 공무원 구조가 관료제이다 보니 결국에는 결정권자의 의지가 중요한 셈이죠. 국립국어원장님께서 이 글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원장님과 광역 지방 자치 단체장, 행정자치부 등이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공무원이나 관에 권유해도 큰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의 권유 사항이 실제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사람, 즉 의사결정자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말들의 순화어를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외래어·외국어가 널리 보급되기 전에 미리 순화어를 만들어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통용되는 말들에 대해 순화어를 제시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통용되기 전에 미리 순화어를 제시해야죠. 물론 통용된 이후에도 성공한 사례들은 있지요. ‘누리꾼’이나 ‘덧글’이 예가 될 수 있겠군요. 하지만 그런 사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권창섭** 저는 순화어를 선정하여 제시하는 일 자체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종종 제시된 순화어들이 과연 적절한 대체 용어가 될 만한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선 예에서 ‘웰빙’을 ‘참살이’로 순화한 것은 그럴듯하지만 ‘레이싱걸’을 ‘행사 빛냄이’라든가 ‘웹툰’을 ‘누리터 쪽그림’으로 순화한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선 예는 기존 어휘의 뜻을 순화어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뒤의 예는 두 음절의 외래어를 여섯 음절로 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박용식**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판단과 선택이 어차피 언중의 몫

이라면 일단 그것을 전제로 통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언중이 취사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순화어를 선정하고 제시하는 측에서도 언중이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리는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사용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국가가 나서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작가의 작품 활동이나 언론에서 순화어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파급력이 있겠죠. 국가에서 강요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하는 것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순화어에 대해서는 저도 참 고민이 많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질문이 많습니다.

## 실질적인 성과 위해 더 많은 지원 필요

**권창섭** 기존에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 외에 2015년에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혹은 계획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박용식** 한글 주간 행사 가운데 학생이나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올해 한글 주간 행사에는 스스로 참여해 함께 만들어 보는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입체 이야기 책(팝업북) 만들기 체험’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권창섭** 지역적 특성을 가진 사업으로 올해 진행 중인 사업은 없는지요?

**박용식** 지역어 보존 사업의 하나로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는 지역어 전래 동화’라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그리고 어린 세대들은 이 지역 방언을 잘 모르잖아요. 그 세대들에게 방언과 지역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경남 지역의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지역어 전래 동화를 녹음하여 시디(CD)로 만들고, 해설서도 곁들일 겁니다.

**권창섭** 흥미로운 사업이네요. 시디 외에 다른 매체로도 확장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박용식** 그리고 경상남도와 함께 ‘우리말 가꿈이’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가꿈이’는 국민의 바른 언어 사용과 바람직한 한글 문화 전파에 앞장서는 대학생 동아리로, 경상남도의 ‘국어책임관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5년 광역 지자체 국어책임관 지원 사업’에 선정돼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과 공동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청소년 언어 바로 쓰기, 공공 언어 바로 쓰기, 토박이말 알리기’ 등을 주제로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과 경남의 곳곳으로 홍보 활동을 나가다 보니 무척 바쁘네요. 보람 있는 일인 만큼 품도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권창섭**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어문화원의 일들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나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식** 지금까지 하던 말의 연장선에 있는 말 같은데요, 지역 박물관 처럼 지역 국어문화원에도 국립국어원 소속의 정규직 상근자가 한 명 정도 배정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구원들의 열정에만 기대어서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사실 대학원생이나 대학생에게 국어문화원 일을 맡기는 것이 상당히 미안합니다. 동기 부여를 하려면 일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래도 성과는 내야 하고 그러면 일은 또 힘들어지고……. 실적도 실적대로 중요하지만 실제 각 지역 국어문화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들의 처우나 상황도 고려해서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국어문화원의 일들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을 듯합니다. 사실 현재 각 국어문화원에 할당된 예산으로는 상근자들에게 최저 시급도 못 주거든요. 우리가 경상남도 대표로 국어문화원으로 선정된 것이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미안함만 커집니다.

**권창섭** 게다가 사업이 이뤄지는 기간만 보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식** 네. 보통 사업 기간이 10개월이고 그 10개월 동안만 보수가 지급되지요. 그런데 그 10개월 외에는 일을 안 할까요? 계속합니다. 기관의 성격상 상담 업무나 연구, 교육은 사업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창섭** 열악한 현실이 여러 협력 행정 기관에 잘 알려져야 할 필요도 있겠네요.

**박용식** 국립국어원-행정 부처-국어문화원 사이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겠지요. 서로가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각 대학의 국어문화원들은 연구 사업도 열심히 해 보고 싶고,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도 좋았으면 하는 소망이 우선이고요, 국립국어원이나 행정 부처의 입장에서는 이 기관에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된 것이니 국민들에게 보여 줄 만한 가시적인 성과물들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 행사가 활발해야 하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일이 보통 품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동력이나 예산은 부족한 것이 국어문화원의 실정이지요. 그런데도 국어문화원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이마저도 없으니까 아쉬워하지요. 대략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들도 주어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일들은 잘 해야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언어와 국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신경을 더 써 주었으면 해요. 대규모 토목 사업이나 건설 사업 등에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 규모에 비하면 언어와 국어를 위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요구되는 비용은 정말 얼마 안 되는 액수이거든요? 국립국어원이나 정부에서 좀 더 국어문화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권창섭** 오랜 시간 국어문화원이 하고 있는 일들과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이 대답으로 국어문화원의 사정이 현재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식** 네. 감사합니다.